

■ 동문 칼럼

# 인문학, 로컬운동, 환경실천이 답이다



정순애 광주시의회 부의장 (호남대 신방과 2005년 졸업)

어떤 석학도 싱크탱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2020년을 집어삼켰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인류의 일상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긴장을 지속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영웅적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잠시 멈춤'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했던 시민들이나 동창회, 송년회 등 크고 작은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행동반경을 축소했던 비감염 시민들이나 공히 느낀 점이 있다면 그건 올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해라는 점일 것이다.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고독한 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사치스럽게 여겨지다가 했던 '사색'의 기회가

생겼으며,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운동가들이나 하는 일로 여겼던 환경보호를 위해 나 한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실천'의 의지가 생긴 것이다. 당분간 지속될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얻은 해답은 그래서 인문학과 로컬운동과 환경실천이다.

세상이 중단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성찰 할 수 있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고도성장같은 단어들 상정하는 것은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자원의 고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생물의 돌연변이, 새로운 질병의 창궐같은 현상이 바로 절제할 줄 모르는 인류에 보내는 지구의 신호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는 비로소 수천년 전 문명을 일군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류는 무엇에 울고 웃고 전성하고 환호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바로 인문학이다. 십수년전부터 불던 인문학 열풍은 바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 일 것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 것, 앞으로도 지역이 건강해야 나라 전체가 건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코로나 발생초기 대구 신천지 사태 때 광주를 과감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병상을 나누고 방역물자를 보냈다. 대구의 중증환자치료시설에

자원봉사를 간 의사 간호사가 수십명이었다. 당국이 시민들에게 방역협조를 당부할 때 우리는 일부 부주의한 시민들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나부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가 밭 디디고 살아가는 이 지역공동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성을 유지하려는 로컬운동은 코로나가 극복된 후로도 이어져야 한다.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부터 작은 실천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다큐멘터리 프로에서나 보았던 아마존 삼림의 파괴, 북극 빙하의 소멸, 전 지구적 사막화의 진행, 동물종의 지속적인 멸종을 더는 팔짱 끼고 볼 수만 없다는 생각을 이제 누구나 하게 된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과대포장 반대,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 친환경 자동차 구입등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실천을 크건 작건 해나가게 된 것이다. 이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행사나 소비행태가 못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는 재앙이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던 우리민족의 슬기는 계속 발휘될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풀리고 난 뒤 우리시민들은 한껏 성숙한 교양인들로 변해있을지 모른다.

■ 학생기자 칼럼

# 달라진 세상, 각성과 배려를 배우다



조나영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 1학기 대학은 매우 새롭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개강을 앞둔 2월, 수업 준비를 위해 속속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3월 개강은 연기됐다.

곧 나아지리라 기대했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결국 1학기 수업은 전면 비대면으로 방향을 잡았고, 수업 방식이 바뀌면서 강의 준비와 수강, 평가 등 관련된 모든 일이 긴박하게 돌아갔으며 그로 인해 혼선도 있었다.

전례없는 비대면 수업. 대학생은 그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고 이끌 미래의 거울이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요즘의 대학생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말로만 젊음과 지성을 앞세울 뿐 학문의 증진 보다는 소비와 취직준비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많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장기화 되면서 일상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장 위축된 사람들은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생 청년들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활동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내 기업 중에 절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취업포기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심리적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무력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태로 인해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여러 번 좌절되었기 때문에 무력감과 우울감이 심화 되어 결국 모든 것을 단념해버린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놀러 다니거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힘들게 버텨온 순간이 소용없어지게 될 수 있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로 벌이는 사소한 일들이 나비효과를 불러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걸 잊어서 안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생필품이 꼭 떨어져 장을 봐야 한다면, 부득이하게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코와 입 둘 다 보호하고, 중간 중간 화장실에 들러 손에 비누칠을 한 후 30초 동안 물로 꼼꼼하게 씻어내는 등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떠올렸을 한다.

이런 시기에 전공과목 신문제작 실습 수강생인 우리들은 과연 어떤 주제의 신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과 함께 앞으로의 각성을 지면에 담아보자고 결론내렸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는 점과 심각성을 경고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조장도 안 된다는 점, 재난 상황이기에 정부에 협조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방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주제가 코로나19인 만큼 취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취재를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이 시국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초리를 감수해야만 했다. 얼마나 정성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풍성한 기사를 쓸 수 있었고 취재를 했다는 기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기사를 작성하며 나의 부족한 어휘력을 통감하면서 함께 강의 듣는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 명예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게 기사를 작성해야겠다고 느꼈다. 비록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기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신문제작실습'은 귀중하고 매우 필요한 경험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인류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한다. 삶이 바뀌고 의식도 확연히 바뀔 것이다. 교육 현장도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 기 고

# 코로나 19 이후 남겨지게 될 것들



오건중 광주환경공단 미래혁신팀장

때마다 분리수거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분리배출 습관이 자리 잡았음에도 좀처럼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원료 단계의 재활용에 대한 비용적 메리트가 떨어져 재활용 수집 업체는 비교적 잘 분리된 재활용품마저 수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예외를 용인해야 할 것인가, 환경 문제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최소한 당장은 우리를 옥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위생과 보건으로 포장된 편의를 위해 사용했던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들을 모두 폐기 처리하는 방법에 기대어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폐기물 처리 능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도 각 지자체는 매립장의 확보 소각장 가동 고체 연료화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았다. 결국 처리량이 쓰레기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바로 쓰레기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이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염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회용품 또는 재활용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씻어서 다시 쓰는 습관 세척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 물론만 씻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씻겨 내려간다. 코로나19를 포함해 바이러스는 비누에 노출되면 표면의 지질막 구조가 파괴되어 감염성을 잃어버린다. 심지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고체 비누라도 거품을 내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면 감염의 우려는 없다.

포장에 쓰이는 원료를 줄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제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해체 시 부피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고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포장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과대 포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 불필요한 포장 용기를 반송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습관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용을 통해 포장재 생산자에게 출고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전에 비해 다소 수그러들었다 성급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이 팬데믹 상황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빗장이 풀려 버린 일회용품 사용량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잔뜩 쌓여 버린 쓰레기들과 느슨해져 버린 경각심을 그냥 두어서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환경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위급한 필요에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말았다. 과연 환경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얼마 동안이나 용인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쏟아낸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최소한 예전 수준 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 이 글은 광주일보 11월 9일자 23면에 실린 글로, 필자와 광주일보사의 동의를 얻어 전문 재록합니다.

코로나시대 신문

발행처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작처	(주)공감네트웍
인쇄처	광주일보사
지도교수	조경환

본지는 3000부가 인쇄되어 광주광역시 일간지 구독세대 일부에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게재된 모든 기사의 책임은 발행처인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습니다. (문의 062-940-5266) 본지는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인용 및 전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극 | 한 | 청 | 결**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국내최첨단설비의 의료세탁물 처리기업  
백양실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백양실업** Tel. 061)392 7900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